# 국제 금융 속보

국제금융센터
Flash News
2022. 6. 20
해외동향부 (제 6237)

■ **주요 뉴스: 연준의 주요 인사, 강력한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를 피력**

○ 미국 재무장관, 성장 둔화를 예상. 다만 경기침체 회피가 불가능은 아니라고 판단

○ 프랑스 총선, 범여권의 의회 과반 확보 실패 예상

○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, 고물가 및 높은 임금상승률 여건을 경계

■ **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통화긴축 강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**
**주가 하락[-5.8%], 달러화 강세[+0.5%], 금리 상승[+7bp]**

○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경제 불확실성 및 기업실적 부진 전망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4.6% 하락

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상대적으로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 등이 영향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0.5% 하락

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정책 가속화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5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4% 상승, 한국 CDS 상승

| | | 6/17일 | 6/10일 | 전주말대비 |
|---|---|---|---|---|
| 주가 | 미국 | 3,674.8 | 3,900.9 | -5.79% |
| | 유럽 | 403.25 | 422.71 | -4.60% |
| | 중국 | 3,316.8 | 3,284.8 | 0.97% |
| | 일본 | 25,963 | 27,824 | -6.69% |
| | 한국 | 2,440.9 | 2,595.9 | -5.97% |
| 환율 | 달러지수 | 104.70 | 104.15 | 0.53% |
| | 유로화 | 1.0499 | 1.0519 | -0.19% |
| | 엔화 | 135.02 | 134.41 | -0.45% |
| | 위안화 | 6.7167 | 6.7091 | -0.11% |
| | 원화 | 1,287.3 | 1,268.9 | -1.43% |

| | | 6/17일 | 6/10일 | 전주말대비 |
|---|---|---|---|---|
| 국채금리 10y | 미국 | 3.23% | 3.16% | 7bp |
| | 독일 | 1.66% | 1.52% | 15bp |
| CDS 5y | 한국 | 50bp | 48bp | 2bp |
| | 중국 | 85bp | 76bp | 9bp |
| 위험지표 | EMBI+ | 429 | 403 | 26bp |
| | VIX | 31.13 | 27.75 | 12.18% |
| 원자재 | WTI유 | 109.56 | 120.67 | -9.21% |
| | 구리 | 401.4 | 429.5 | -6.54% |
| | 금 | 1,839.4 | 1,871.6 | -1.72%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■ **연준의 주요 인사, 강력한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를 피력**

○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. 한편 공급 차질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는 향후 통화긴축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

○ 클리블랜드 메스터 총재는 경기침체 발생을 예상하지는 않지만,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.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이에 일조하고 있다고 진단.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나, 목표(2%) 달성에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
○ 월러 이사도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.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예상에 부합한다면 7월 FOMC에서도 6월 FOMC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첨언. 또한 수요 둔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신속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

○ 다만 캔사스시티 연은 조지 총재는 6월 FOMC에서 0.75%p 인상을 반대했다고 언급. 대차대조표 축소와 큰 폭의 금리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향후 정책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

○ 한편 이번 주 6/22일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예정. 그 동안의 파월 의장 발언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지만 경기침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전망. 다만 시장에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**미국 재무장관, 성장 둔화를 예상. 다만 경기침체 회피가 불가능은 아니라고 판단**

○ 옐런 장관은 금년 말까지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며, 이에 따른 영향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된다고 언급. 다만 현 상황에서 경기침체 회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

○ 국가경제위원회의 브라이언 디즈 위원장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. 또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첨언

■ **WSJ 설문조사, 1년 이내 경기침체 발생 확률은 44%**

○ 이번 결과는 설문조사 이래 최고치이며, 이는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했거나 그 직전에나 볼 수 있는 수치로 해석.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진 이유로 물가급등, 대출금리의 상승, 공급망 차질 지속,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거론

○ 한편 BofA는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40%에 이르며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. Ethan Harris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제어에 뒤쳐져 있던 연준이 단기간 내에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

■ **독일, 가스 부족 사태 대비하여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확대**

○ 정부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축소를 인식하고, 가스 소비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할 방침. 하벡 경제장관은 러시아가 가스가격 인상을 통해 경제혼란을 유도하고 있는데,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

■ **프랑스 총선, 범여권의 의회 과반 확보 실패 예상**

○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은 200~260개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. 이는 다수당 지위는 유지하나 과반(289개)에는 크게 부족. 이번 결과로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

■ **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, 고물가 및 높은 임금상승률 여건을 경계**

○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%를 상회하는 연간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. 다만 고물가 고착화 등이 발생하면 강력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첨언

## 주요 경제지표

■ **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6/17 현지시각 기준)**

○ 미국 5월 설비가동률: 79%, 4월(78.9%), 예상치(79.2%)

■ **주요 경제 이벤트(6/20 현지시각 기준)**

○ 미국 노예해방기념일 대체휴일,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불라드 총재 강연

○ ECB 라가르드 총재 및 파네타 위원 강연,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(LPR) 결정

○ 유로존 4월 건설지출, 독일 5월 생산자물가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**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, 통화긴축 영향 등 3가지 변수 고려할 필요 - Financial Times**

(When trying to predict inflation in the US, remember the wild cards)

○ 첫째, 통화긴축 영향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주요 변수. '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상승한 자산가격 및 부채수준이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하락 시 정부의 세수감소 등을 초래. 이는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인하를 강제할 우려

○ 둘째, 최근 수년간 주택융자는 대부분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금리인상에도 전반적으로 대규모 주택매도 가능성은 낮은 상황. 다만 이러한 영향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았던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및 가격조정이 예상

○ 셋째, 임금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. 고물가는 노동수요 증가 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및 러·우 전쟁 등 정치적 여건이 결정적인 원인. 특히 러·우 전쟁의 종료 과정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

■ **주요국 중앙은행, 통화긴축 추진으로 3가지 위험을 초래할 소지 - WSJ**

(The Lords of Money Pose Massive Threats to Markets)

○ 중앙은행들의 정책기조 변화로 극단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. 첫째,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서면서 경기침체와 기업 이윤 감소 위험이 부각. 특히 이러한 여파는 금융시장 내 여러 자산가격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

○ 둘째, ECB의 금리인상 추진으로 이탈리아 등 역내 취약국의 디폴트 확률이 증가. 셋째, 일본은행이 고물가 지속 시 수익률곡선통제(YCC)의 국채금리 상한을 높일 수 있는데, 이는 헤지펀드의 외환포지션 손실 급증을 초래할 우려

■ **WTO, 여전히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- Financial Times**

(The WTO is on life support — but the world still needs it)

■ **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압력 증가, 신흥국의 경제 개혁 및 부채 축소를 요구 - WSJ**

(Rising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Heap Pressure on Emerging Market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